교회일치의 비밀, 수렴과 발산

(엡4:1~16)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일치의 비밀, 수렴과 발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수렴과 발산이 교회일치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의 움직임이 없으면 교회는 일치될 수 없고, 일치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한 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값을 낼 때도 한 사람이 돈을 수렴합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다, 이게 수렴입니다.
발산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냄새나 빛이나 열 같은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걸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렴과 발산은 수학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다방면으로 아주 곳곳에서, 해당되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해석의 키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요즘, 증권투자에 있어서 이 수렴과 발산의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을 수렴이라 그러고, 주가운동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폭발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해서, 이 수렴과 발산의 원리를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수렴과 발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 개념인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치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일치라고 하니까 김 집사님의 생각과 이 집사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 서로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해서 협정을 맺듯이 그렇게 일치되는 것.
지금 박 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가서 경제인들을 놓고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그때 스위스와 한국이 경제협력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상태를 그림으로 보듯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분수 같은 거예요.
분수인데, 위에서 분출되는 노즐이 하나뿐인 분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노즐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 노즐에서 물이 솟아나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를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위에서 여러 개의 노즐로 여러 개의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사방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가운데 하나의 관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수렴이라는 거예요.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여러 개의 노즐이 있는 그 줄기를 따라, 파이프를 따라서 퍼져 나가가지고, 위에서는 여러 개의 노즐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솟아나옵니다.
그 분수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밑에서 사방팔방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하나의 파이프로 모아 가지고, 그 물이 올라온 다음에 여러 개의 노즐로 다시 분출이 되는 것, 발산 되는 것.
이 발산되는 과정,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이 과정까지가 다 일치에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장로님 세 분이서, 한 의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일치는 이 세 분이 한 점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제3의 한 점으로.
우리들끼리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밖에 있는 제3의 점으로 모아지는 수렴의 과정을 통해야 일치가 이루어지고, 수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발산이 있어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데, 크게 1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수렴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발산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16절까지는, 이렇게 수렴과 발산의 과정이 점점 성숙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수렴이 잘되고 발산이 잘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아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까지를 합쳐서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이는 것과 흩어짐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이건 외적인 수렴과 발산이라 그러면, 교회의 일치는 모였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치가 일어나려면, 내적인 수렴과 발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수렴의 과정이 완수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돼야 여러분 수렴이 될 거 같습니까?
이게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이니까, 3장에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 개인에게 적용될 때, 나 개인에게서부터 수렴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렴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보지요.
독일 드레스덴에서 며칠 전에, 유럽 쇼트트랙 빙상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선수권대회.
거기서 러시아로 귀화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 현수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빙상계의 분위기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러시아로 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이 4개의 금을 땄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서 먼저 수렴이 일어나려면 뭐가 수렴이 되어야 하냐 하면 마음이 수렴이 돼야 합니다.
마음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2관왕이 되시고, 3관왕이 되시

고, 4관왕이 되시고, 10관왕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 경주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돈 문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어느 영역에 어느 대상에 일등으로 관심을 주느냐라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을 먼저 빼앗아 가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빼앗아 가느냐.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돈 문제에 먼저 주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냐.
돈과 붙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지금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등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일등하실 때 내게 주어지는 힘이, 그걸 능력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등하실 때 하늘의 빛이 내 마음에 빛이 비취면서, 아! 돈이 없어도 거뜬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속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정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세상의 삶의 국면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옆에 계시니까.
그러면, 옆에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먼저 드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마음을 먼저 드릴 것인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2관왕이 되십니다, 가정문제에 있어.
직장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이 있는데,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장문제에 마음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일등 했습니다, 3관왕이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수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김 집사님도 자랑합니다, 내가 3관왕.
안 현수 선수가 내가 4관왕이 됐다고 손을 번쩍 치켜드는 거예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 돼야 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동안에는 4관왕이 되셨어, 자식을 이겼어,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이 이기셨어, 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강문제를 하나님이 이기셨어, 그래서 요번 주에는 하나님이 3관왕이 되셨어, 김 집사님이 3관왕, 박 집사님이 4관왕, 목사님은 5관왕을 자랑하십니다, 장로님이 또 6관왕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6관왕이 되셨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데 돈 문제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대해 죽다보니까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가정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마음이 일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등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획득에 일등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일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꾸 '양보하세요!' 뭐 이렇게 해 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주장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을 얘기할 때 10초 생각하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communication의 기술 갖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2관왕, 3관왕, 4관왕이 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3관왕을 자랑하는 김 집사님을 볼 때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 하면, 겸손, 온유, 용납함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해라, 겸손해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이 몇 관왕인 삶을 산 사람을 밖에서 보게 되면, 어!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수렴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00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이 모여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수렴이 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일치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제 발산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이 다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전부 2관왕, 3관왕, 4관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가지고, 하나님이 일등하시는 그 영광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힘 때문에 속사람의 힘들이 강건해졌습니다.
속사람의 힘이 강건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등 하실 때 주어지는 천국 빛에 의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황금빛을 보면 배부르잖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일등해서 영광을 받게 될 때, 그 자녀의 영광의 빛이 쐬면 배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나 자신의 인생이 일등자리에 서서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또 배부르잖아요. 영광의 빛이 비치면 배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얼마나 더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몇 관왕이냐 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배부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아질수록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은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산을 해버리십니다.
모아진 자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육체가 다 아직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육체를 분수대 위에 있는 노즐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운을 발산시켜버리십니다.
이때 나타는 게, 고린도전서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선지자다, 교사다, 목사다, 사도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발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산하십니까?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만유를 통일하신다.
모든 사람을 통일시켜 버려요.
지금, 사람 말고 이 온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통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고, 꽃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는데, 눈을 맞고 있는 사람 속에서만 하나님이 관통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관통시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김 집사님도 관통하시고, 박 집사님도 관통하시고, 목사님도 관통하시고, 장로님도 관통하실 때, 거기에 격침도 없고 어긋남도 없고 다~ 발산이 돼서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일치는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 밀가루반죽 뭉치듯이 단일화,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치를 꿈꾸는 때도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끼리 동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것, 이건 야합입니다.
인간끼리의 타협과 양보와 이해타산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 야합입니다.
인간들의 모임 바깥에 있는 제3의 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수렴됨으로써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우리가 서로 서약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건 부부가 야합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한 2, 3관왕은 돼야 되요, 매일같이.
3,4관왕은 되셔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
이래서 서로서로가 나한테서 하나님이 4관왕 되셨다, 나한테서는 하나님이 3관왕 되셨다하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수렴이 될 때에, 부부가 일치가 될 수 있

다는 겁니다.
그 일치가 되면 부부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발산 되면서.
그러면서 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이 많아요.
요새 그 아베라고 하는 쪼그만 사람이 일본 수상에 들어서가지고, 정말 경제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엔저, 돈을 막 마구잡이로 찍어낸 겁니다.
엔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출이 자꾸 막히니까.
이게 경제원칙의 균형을 깨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해요, 그냥.
일본이 요새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요,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래서 걱정이 많지요.
그러니까 박 근혜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많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 쪽을 의지하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망할 일도 없고, 중국 때문에 덕 볼 일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는, 박 근혜 대통령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에요.
교회만 제대로 되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임새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하세요, 교회 걱정.

교회 걱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일치를 위해서 자꾸 장로님들보고 서로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장로님들보고 양보하라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전하세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하세요, 십자가를 생활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교인의 마음속에서, 2관왕, 3관왕, 4관왕이 되시도록 하세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4관왕 되시고, 6관왕 되시면, 갑자기 그렇게 말썽피우고 무조건 당회에 다른 전체 장로님들과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던 문제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5관왕, 4관왕 되시면 완전히 개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세요.
둘이 하나 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자꾸 양보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앞장 서 가지고 십자가를 생활화합시다, 십자가를 생활화 합시다.
이거 비난할 사람이 없거든요.
십자가를 생활화 하자는데, 그거 안하자면 이단이지요.

계속 생활화하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보세요.
그래서 아래에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메달 하나도 못 따고 하루가 지날 때가 많아요.
전부 돈 문제, 자식문제, 사람문제, 직장에서의 상관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마음 다 뺏겨 가지고 하나님이 등수 안에 못 들어요, 3등 안에도 못 들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무슨 일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수렴이 되질 않는데.
어떡하든지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보이게 안 보이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해 가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일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일치가 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일치의 비밀이 뭡니까? 수렴과 발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발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거니까.
'나' 라고 하는 이 육체의 노즐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운과 선물로서의 은사를 발산하시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 일이 있을 때, '아이구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차지함이 일등 되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7관왕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자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하루의 삶에서 드레스덴의 안 현수 선수처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4관왕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수렴되고 내 이웃의 김 집사님의 마음도, 이처럼 하나님 4관왕 되는 수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당신의 은사와 당신의 계획을 발산하실 수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당신의 뜻을 발산하시는 노즐로 쓰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